

## 지도의 암실 (地圖의 暗室)

기인동안잠자고 짧은동안누웠던것이 짧은동안 잠자고 기인동안누웠던그이다 네시에누우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아홉시에서열시까지리상—나는리상한우스운사람을아안다 물론나는그에대하여한쪽보려하는 것이거니와—은그에서 그의하는일을떼어던지는것이다. 태양이양지짜처럼 내려쬐이는밤에비를퍼붓게하여 그는레인코우트가없으면 그것은어쩌나하여 방을나선다.

이삼모각로도북정거장 좌황포차거 (離三茅閣路到北停車場 坐黃布車去)

어떤방에서그는손가락끝을걸린다 손가락끝은질풍과같이지도위를거웃는데 그는마많은은광을 보았건만의지는걸는것을엄격케한다 왜그는평화를발견하였는지 그에게묻지않고의례한K의바 이블얼굴에그의눈에서나온한조각만의보자기를조각만덮고가버렸다.

옷도그는아니고 그의하는일이라고그는옷에대한귀찮은감정의버릇을늘하루의한번씩벗는것으로이렇지아니하냐 누구에게도없이반문도하며위로도하여가는것으로 도 보아 안버린다.

친구를편애하는야속한고집이 그의발간몸덩이를 친구에게그는그렇게도쉽사리내어맡기면서 어디친구가무슨짓을하기도하나 보자 는생각도않는못난이 라고도하기는하지만사실에그에게는 그가그의발간몸덩이를가지고다니는 무거운노역에서벗어나고싶어하는갈망이다 시계도치려거든칠것이다 하는마음보로는한시간만에세번을치고삼분이남은후에육십삼분만에쳐도너할 대로내버려두어버리는마음을먹어버리는관대한세월은 그에게 이때에시작된다.

암뿌으르에봉투를 씌워서그감소된빛은 어디로갔는가에대하여도그는한번도생각하여본일은없이 그는이러한준비와장소에대하여관대하니라 생각하여본일도없다면 그는속히잠들지아니할까 누구라도생각지는아마않는다 인류가아직만들지아니한글자가 그자리에서이랬다 저랬다하니무슨암시 이나가무슨까닭에 한번읽어지나가면 그도무소용인글자의고정된기술방법을채용하는 흡족지않은버릇을쓰기를버리지않을까를그는생각한다 글자를저것처럼가지고그하나만이이랬다저랬다하면또생각하는것은 사람하나 생각돌말글자 셋 넷 다섯 또다섯 또또다섯또또또다섯그는결국에시간이라는것의무서운힘을 믿자아니할수는없다한번지나간것이 하나도쓸데없는것을알면서도하나를버리는목은짓을그도역시거절치않는지그는그에게물어보고싶지않다 지금생각나는것이나 지금까지는글자가이따가가질것하나 하나 하나 하나에서 모두씩못쓸것인줄알았는데왜지금까지느냐안가지면 고만이지하여도 벌써가져버렸구나 벌써가져버렸구나 벌써가졌구나 버렸구나 또가졌구나.

그는아파오는시간을입은 사람이든지길이든지 걸어버리고걸어차고싸와대이고싶었다 벗겨도 옷 벗겨도옷 벗겨도옷 벗겨도옷 인다음에야걸어도길 걸어도길인다음에야 한군데버티고서서 물러나지만않고 싸워대이기만이라도하고싶었다.

암뿌으르에불이확켜지는 것은 그가깨이는것과같다하면이렇다 즉밝은동안에불인지마안지하는얼마쯤이 그의다섯시간뒤에 흐리멍덩이달라붙은한시간과같다하면 이렇다즉그는봉투에싸여없어진지도모르는암뿌으르를보고 침구속에반쯤강삼아진그의몸덩이를보고봉투는 침구다생각한다 봉투는옷이다 침구와봉투와 그는무엇을배웠느냐몸을내어다버리는법과 몸을주워들이는법과 미달이에광선잉크가 암시적으로쓰는의미가 그는그의 몸덩이에불이 확켜진것을알라는 것이니까 그는봉투를입는다 침구를입는것과 침구를벗는것이다 봉투는옷이고 침구다음에그의 몸덩이가 뒤집어쓰는것으로닿는다 발강게암뿌으르에습기제하고젖는다 받아서는내어던지고 집어서는내어버리는하루가불이들어왔다불이꺼지자시작된다 역시그렇구나오늘은 카렌더의 붉은빛이 내어내었다고 그렇게카렌더를만든사람이나떼이고간사람이나가마련하여놓은것을 그는 위반할수가없다 K는그의방의카렌더의빛이 K의방의카렌더의빛과일치하는것을 좋아하는선량한사람이니까 붉은빛에대하여겸하여그에게경고하였느냐그는몹시생각한다 일요일의붉은 빛은월요일의흰빛이 있을때에못쓰게된것이지만 지금은가장쓰이는것이로구나 확실치아니한 두자리의숫자가 서로맞붙들고그가웃는것을보고 웃는것을흉내내어웃는다 그는 카렌더에게 지지않는다 그는대단히넓은웃음과 대단히좁은웃음을 운반에요하는시간을 초인적으로가장짧게하여 웃어버려보여줄수있었다.

인사는유쾌한것이라고하여 그는게으르지않다 늘. 투스부러시는그의이사이로와보고 물이얼굴 그중에도뺨을건드려본다그는변소에서 가장먼나라의호외를 가장가깝게보며 그는그동안에편안히서술한다 지난것은버려야한다고거울에열린들창에서그는리상—이상히이름은 그의그것과똑같거니와—을만나다리상은그와똑같이 운동복의준비를차렸는데 다만리상은그와달라서 아무것도하지않는다하면 리상은어디가서하루종일있단말이요 하고싶어한다.

그는그책임의무체육선생리상을만나면 곧경의를표하여그의얼굴을리상의얼굴에다문질러주느

라고 그는수건을쓴다. 그는리상의가는곳에서하는일까지를묻지는않는다. 섭섭한글자가하나씩 하나씩썼다가 쓰러지기위하여 나앉는다.

니상나아거 이차 주심○ (○上那兒去 而且 做甚○)

슬픈먼지가웃에 옷을입혀가는것을 못하여나가게 그는얼른얼른쫓아버려서떡다행하였다.

그는에로시앵코를읽어도좋다 그러나그는본다왜나를 못보는눈을가졌느냐차라리본다 먹은조반은 그의식도를거쳐서바로에로시앵코의뇌수로들어서서 소화가되든지안되든지 밀려나가던 버릇으로 가만가만히시간관념을 그래도아니어기면서앞선다 그는그의조반을 남의뇌에떠맡기는것은견딜수없다 고견디지않아버리기로한다음 곧견디지않는다 그는찾을것을곧찾고도 무엇을찾았는지알지않는다.

태양은제온도에조울릴것이다 쏘아뜨릴것이다 사람은딱정버리지처럼될것이다 따듯할것이다 넘어질것이다 새까만핏조각이땡그렁소리를내이며 떨어져깨어질것이다 땅위에늘어붙을것이다 내음새가날것이다 굳을것이다 사람은피부에검은빛으로도금을올릴것이다 사람은부딪칠것이다소리가날것이다.

사원에서종소리가걸어올것이다 오다가여기서놀고갈것이다 놀다가가지아니 할것이다.

그는여러가지줄을잡아다니라고 그래성났을때내어거는표정을장만하라고 그래서그는그렇게해 받았다 몸덩이는성나지아니하고 얼굴만성나자기는얼굴속도 성나지아니하고살껍데기만성나 자기는 남의모가지를얻어다 붙인것같아꽤제멋적었으나 그는그래도그것을 앞세워내세우기로 하였다 그렇게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게다른것들 즉나무사람옷심지어 K까지도그를놀리려드는 것이니까 그는그와관계없는나무사람옷심지어 K를찾으려나가는 것이다 사실빠나나의나무와 스케이팅여자과 스커어트와교회에가고마안 K는그에게관계없었기때문에 그렇게되는자리로 그는그를옮겨놓아보고싶은마음이다 그는K에게외투를얻어그대로돌아서서입었다 뿌듯이쾌감 이어깨에서잔등으로걸쳐있어서비이키지않는다 이상하구나한다.

그의뒤는그의천문학이다 이렇게작정되어버린채 그는별에가까운산위에서 태양이보내는몇줄의별을압정으로 꼭꽂아놓고 그앞에앉아그는놀고있었다 모래가많다 그것은모두풀이었다 그의 산은평지보다낮은곳에 처어져서그뿐만이아니라 움푹오므려들어있었다. 그가요술가라고하자 별들이구경을나온다고하자 오리온의좌석은 조기라고하자 두고보자 사실그의생활이 그로하여금웁직이게하는짓들의여러가지라도는 무슨모습쓸흥내이거나 별들에게나구경시킬 요술이거 나이지이쪽으로 오지않는다.

너무나의미를 잃어버린그와 그의하는일들을 사람들사는사람들틈에서 공개하기는 끔찍끔찍한 일이니까 그는피난왔다 이곳에있다 그는고독하였다 세상어느틈사구니에서라도 그와관계없이나마 세상에관계없는짓을하는이가있어서 자꾸만자꾸만의미없는 일을하고있어주었으면 그는 생각아니할수는 없었다.

JARDIN ZOOLOGIQUE

CETTE DAME EST-ELLE LA FEMME DE

MONSIEUR LICHAN?

앵무새당신은 이렇게지껍이면 좋을것을그때에 나는

OUI!

라고 그러면 좋지않겠읍니까 그렇게그는생각한다.

원숭이와절교한다 원숭이는 그를흥내내이고 그는원숭이를흥내내이고 흥내가흥내를 흥내내이는것을 흥내내이는것을 흥내내이는것을 흥내내이는것을흥내내인다 견디지못한바쁨이있어서 그는원숭이를보지않았으나 이리로와버렸으나 원숭이도그를아니보며 저기있어버렸을것을생각하면가슴이 터지는것과같았다 원숭이자네는사람을흥내내이는버릇을타고난것을자꾸사람에게도 그모양대로되라고하는가 참지못하여그렇게하면 자네는또하라고 참지못해서 그대로하면 자네는또하라고 그대로하면 또하라고그대로하면또하라고 그대로하여도 그대로하여도 하여도 또하라고하라고 그는원숭이가나에게 무엇이고시키고 흥내내이고간에 이것이고만이다 딱마음을굳게먹었다 그는원숭이가진화하여 사람이되었다는데대하여 결코믿고싶지않았을뿐만아니라 같은에호바의손에된것이라고도 믿고싶지않았으나 그의?

그의의미는 대체어디서나오는가 머언것같아서불러오기어려울것같다 혼자사아는것이 가장혼

자사아는것이 되리라하는마음은 낙타를타고싶어하게하면 사막넘어를생각하면 그곳에좋은곳이 친구처럼있으리라생각하게한다 낙타를타면그는간다 그는낙타를죽이리라 시간은그곳에아니오리라왔다가도 도로가리라 그는생각한다 그는트렁크와같은낙타를좋아하였다 백지를먹는다 지폐를먹는다 무엇이라고적어서무엇을 주문하는지 어떤여자에게의답장이여자의손이포스트앞에서한듯이 봉투째먹힌다 낙타는그런음란한편지를먹지말았으면 먹으면괴로움이몸의살을마르게하리라하는것을 낙타는모르니하는수없다는것을 생각한그는연필로백지에 그것을얼른배알아놓으라는 편지를써서먹이고싶었으나낙타는괴로움을모른다.

정오의사이렌이호오스와같이 뻗쳐뻗으면그런고집을 사원의종이땅땅때린다 그는튀어오르는 고무뿔과같은 종소리가아무데나 함부로헤어져떨어지는것을보아갔다 마지막에는어떤언덕에서 종소리와사이렌이한데젖어서 미끄러져내려떨어져한데 쏟아져쌓였다가 확헤어졌다 그는시골사람처럼서서끝난뒤를끝까지 구경하고있다 그때그는.

풀잎위에누워서 봄내음새나는 졸음을주판에 다놓고앉아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일곱 여섯 다섯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잠은턱밑에서 눈으로들어가지않는것은 그는그의눈으로 물끄러미바라다보면 졸음은벌써 그의눈알맹이에회색 그림자를던지고있으나등에서비치는햇별이너무따뜻하여 그런지잠은번쩍번쩍한다 왜잠이아니오느냐 자나안자나마찬가지 인바에야안자도좋지만안자도좋지만 그래도자는것이 나왔다고하여도 생각하는것이있으니있다면 그는왜이런앵무새의 외국어를듣느냐 원숭이를 가게하느냐 낙타를오라고하느냐 받으면내어버려야할것들을받아가지느냐고 머리를괴롭혀서는안되겠다 마음을몹시상케하느냐 이런것인데이것이나마생각아니하였으면그나마올것을구태여생각하여 본댔자이따가는소용없을것을왜씨근씨근몸을달리노라고 얼굴과수족을달려가면서생각하느니잠을자지잔댔자아니다 잠은자야 하느니라생각까지하여놓았는데도 잠은죽어라이 쪽으로 자그만큼만더왔으면 되겠다는데도더아니와서 아니자기만하려들어아니잔다 아니잔다면.

차라리길을걸어서 살내어보이는스커트를 보아서의미를찾지못하여놓고 아무것도아니느끼는것을하는것이차라리나오리라 그럴지만어디그렇게 번번히있나 그는생각한다 빠쓰는여섯자에서 조금우우를떠서다니면좋다 많은사람이탄빠쓰가많은이거러가는많은사람의머리 위를지나가면 펍관계가없어서편하리라 생각하여도편하다 잔등이무거워들어온다 죽음이그에게왔다고 그는놀라지않아본다 죽음이묵직한것이라면 나머지얼마안되는시간은 죽음이하자는대로하게내어버려두어 일생에없던가장위생적인시간을향락하여보는편이 그를위생적이게하여 주겠다고그는생각하다가 그러면그는죽음에 견디는세음이냐못 그러는세음인것을자세히알아내이기어려워괴로워한다 죽음은평행사변형의법칙으로 보이르샤아르의법칙으로 그는앞으로 앞으로 걸어나가는데도왔다 떼밀어준다.

활호동시사호동 사호동시활호동 (活胡同是死胡同 死胡同是活胡同)

그때에그의잔등외투속에서.

양복저고리가 하나떨어졌다 동시에그의눈도 그의입도 그의염통도 그의뇌수도 그의손가락도 외투도 자암뱅이도모두어얼러떨어졌다 남은것이라고는 단추 넥타이 한리틀의탄산와사부스러기였다 그러면그곳에서있는것은 무엇이었던냐하여도 위치뿐인폐허에지나지않는다 그는그런다 이곳에서흩어진채 모든것을다끝을내어 버려버릴까이런총동이땅위에떨어진팔에 어떤경향과방향을 지시하고그러기시작하여버리는것이다 그는무서움이 일시에치밀어서성내인얼굴의 성내인 성내인것들을헤치고 핵앞으로나선다 무서운간판저어뒤에서 기우웃이이쪽을내어다보는 틈틈이들여다보이는 성내었던것들의 싹뚝싹뚝된모양이 그에게는한없이 가없어보여서 이번에는그러면가없다는데대하여 가장적당하다고 생각하는것은무엇이니 무엇을내어거얼까 그는생각하여보고 그렇게한참보다가 웃음으로하기로작정한다그는그도 모르게얼른그만웃어버려서그는다시걸어들이기어려웠다 앞으로나선웃음은화석과같이 화려하였다.

소 파 노 (笑 ○ 怒)

시가지한복판에 이번에새로생긴무덤위로 딱정버러지에묻은각국웃음이 헤뜨려떨어뜨려져모여들었다 그는무덤속에서다시한번죽어버리려고 죽으면그래도 또한번은더죽어야하게되고하여서 또죽으면또죽어야되고 또죽어도또죽어야되고하여서 그는힘들여한번몹시 죽어보아도 마찬가지로그러나 그는여러번여러번죽어보았으나 결국마찬가지에서끝나는끝나지않는것이였다 하느님은그를내어버려두십니까 그래하느님은죽고나서또죽게내어버려두십니까 그래그는 그의무덤을어떻게 치울까생각하던꼬트 머리에 그는그의잔등속에서 떨어져나온근거없는 저고리에 그의무덤 파편을 주섬주섬싸 끌어모아가지고 터벅터벅걸어가보기로작정하여놓고 그렇게하여도 하느님은가만히있나를 또그다음에는 가만히있다면 어떻게되고 가만히있지않다면어떻게 활작정인가 그것을차례차례로보아내려가기로하였다.

K는그에게 빌려주었던저고리를 입은다음양시가렛트처럼극장으로몰려갔다고그는본다 K의저고리는풍기취체탐정처럼.

그에게무덤을경험케하였을뿐인가장간단한불변색이다 그것은어디를가더라도까마귀처럼트릭클을웃을것을생각하는그는그의모자를벗어땅위에놓고그가만히있는모자가가만히있는틈을타서그의구둣바닥으로힘껏내려밟아보아버리고싶은마음이종아리살구뼈까지내려갔건만그곳에서장엄히도승천하여버렸다.

남아있는박명의영혼고독한저고리의폐허를위한완전한보상그의영적산술 그는저고리를입고길을길로나섰다 그것은마치저고리를안입은것과같은조건の特別한사건이다 그는비장한마음을가지기로하고길을그길대로생각끝에생각을겨우겨우이어가면서걸었다 밤이그에게그가갈만한길을잘내어주지아니하는협착한속을—그는밤은낮보다뻑뻑하거나 밤은낮보다되애다랄거나 밤은낮보다좁거나하다고늘생각하여왔지만그래도그에게는별일별로없이좋았거니와—그는엄격히걸으며도유기된그의기억을안고 초조히그의뒤를따르는저고리의영혼의소박한자태에 그는그의웃김을여기저기적시어 건설되지도향해되지도 않는한성질없는지도를 그려서가지고다니는줄 그도모르는채 밤은밤을밀고 밤은밤에게밀리우고하여 그는밤의밀집부대의속으로속으로점점깊이들어가는모험을모험인줄도모르고모험하고있는것같은것은그에게있어 아무것도아닌그의방정식행동은그로말미암아집행되어나가고있었다 그렇지만.

그는왜버려야할것을 버리는것을 버리지않고서버리지못하느냐 어디까지라도 괴로움이었음에 변동은 없었구나그는그의행렬의마지막의 한사람의위치가 끝난다음에 지긋지긋이 생각하여보는것을 할줄모르는그는그가아닌 그이지 그는생각한다 그는피곤한다리를이끌어붙이던지는불을밟아가며불로가까이가보려고불을자꾸만밟았다.

아시이수설역급득삼야아시삼 (我是二雖說役給得三也我是三)

그런바에야 그는가자그래서스커어트밑에 번쩍이는 조고만메달에의미없는 베에제를붙인다음 그자리에서있음직이있으려하던 의미까지도 잊어버려보자는것이 그가그의의미를잊어버리는 경과까지도잘잊어버리는것이되고마는것이라고 생각하게되는 그는그렇게생각하게되자 그렇게하여지게 그를 그런대로내어던져버렸다 심상치아니한음향이우뚝섰던 공기를몇개넘어 뜨렸는데도 불구하고심상치는않은길이어야만할것이급기해하에는심상하고 말은것은심상치않은일이지만그일에 이르러서는심상해도좋다고 그래도좋으니까 아무래도 좋오케되니까아무렇다하여도 좋다고그는생각하여버리고말았다.

## LOVE PARRADE

그는답보를계속하였는데 페이브먼트는후울후날으는 초코레에트처럼후후날아서 그의구둣바닥밑을미끄러이쭈뼌빠져나가고있는것이 그로하여금더욱더욱 답보를시키게한원인이라면 그것도원인의하나가 될수도있겠지만 그원인의대부분은 음악적효과에있다고아니볼수없다고 단정하여버릴만치 이날밤의 그는음악에 적지아니한편애를 가지고있지않을수없을만치 안개속에서 라이트는스포오츠를하고 스포오츠는그에게있어서는 마술에가까운기술로 밖에는아니보이는것이였다.

또어가그를무서워하며 뒤로물러서는거의 동시에무거운저기압으로흐르는고 기압의기류들이 용하여 그는그레스토오랑으로넘어졌다하여도 좋고 그의몸을게다가 내어버렸다들어박았다하여도 좋을만치그는그의몸덩이 의향방에 대하여아무러한설계도하여 놓지는아니한행동을 직접 행동과행동이가지는 결정되어있는운명에 내어맡겨버리고 말았다 그는너무나 돌연적인탓에그에게서 빠져져버어져서엎질러졌다 그는이것은이결과는 그가받아서내어던지는 그의하는일의무의미에서도 제외되는것으로사사오입이하에 쓸어내었다.

그의사고력을 그는도막도막내어놓고난 다음에는그사고력은 그가도막도막내인것인 아니게되어버린다음에 그는슬그머니없어지고 단편들이춤한개씩만추고 그가물러가있음직이생각하는데로 차례로차례아니로물러버리니까그의지결이는것은 점점깊이를잃어버려지게되니 무미 건조한그의한가지씩의곡예에경청하는하나도 물론없을것이었지만있었으나 그러나K는그의새빨강게찢어진얼굴을보고곧나가버렸으니까 다른사람하나가있다 그가늘산보를가면 그곳에는 커다란바윗돌이 돌연히있으면 그는늘 그곳에기이대이는버릇인것처럼 그는한여자를늘찾는데 그여자는참으로위치를변하지아니하고있으니까 그는곧기이대이다 오늘은나도화아나는일이씩 많은데 그도 화가났습니까하고 물으면그는그렇다고대답하기전에 그러냐고한번물어보는듯이 눈을여자에게로 흘깃떠보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여자도 곧또고개를끄덕끄덕하지만 그의미는꽤다른줄을알아도 좋고몰라도 좋지만 그는아알지않는다 오늘모두놀러갔다오는사람들뿐이 찍마않은데 그도노올러갔었더랍니까하고 여자는그의씩들어간뺨을씩씩겨쓰다듬어주면서 물어보면그래도 그는그렇다고그래버린다 술을먹는것은 그의눈에는수은을먹는것과같이 밖에는아니보이게 아파보이기시작한지는 꽤오래되었는데 물론그러니까 그렇지만그는술을먹지아

니 하며 커피를 마신다 여자는 싫다는 소리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면 얼굴에 있는 눈가  
앗이 대단히 벌개지면 여자의 눈은 대단히 성질이 달라지면 여자는 그에게 별짓을 다 하여도 그는 변  
하려는 얼굴의 표정의 먹살을 꼭 붙들고 다시는 놓지 않으니까 여자는 성이나 서이빨로 입술을 꼭 깨  
물어서 피를 내이고 축음기와 같은 국어로 그에게 향하여 가느다랗고 길게 막퍼부어도 그에게는 아  
무렇지도 않다 여자는 우운다 누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버릇이 여자에게 붙어 있는 줄 여자는 모  
르는지 그가 여자의 검은 꽃 꽃인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면 너는 고생이자 심하냐는 말을 으레 하  
는 것이라 그렇게 그도 한 줄 알고 여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데 불우에 얹드려 올려 놓은 채 좌우로 조  
금 흔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상하로 흔들 수 없는 까닭인 증거는 여자는 곧 눈물이 글썽글  
썽한 얼굴을 들어 그에게로 주면서 팔뚝을 훌훌 걸으면서 자아보십시오 이렇게 마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암만 내어 밀어도 그에게는 얼마만큼에서 얼마만큼이나 말랐는지도 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겠  
다고 그저 간단히 건드려만 두면 부운한 듯이 여자는 막 우운다.

아까까지도 그는 저 고리를 이상히 입었었지만 지금은 벌써 그는 저 고리를 입은 평상시를 걷는 그이  
고 말아버리게 되어서 길을 걷는다 무시무시한 하루의 하루가 차츰 차츰 끝나 들어가는 구나 하는 어  
둡고도가 가벼운 생각이 그의 머리에 씩 운 모자를 쓰면 벗기고 쓰면 벗기고 하는 것과 같이 간질간질 상  
쾌한 것이었다 조금 가만히 있으라고 암뿌으르의 씩 위진 채로 있는 봉투를 벗겨 놓은 다음 책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책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트램프를 섞을 때와 같이 섞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찾  
기 위한 섞은 것을 차곡차곡 추리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얼른 나오지 않는다 시계는 여덟시  
불빛이 방안에 화안하여도 시계는 친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버릇을 조금도 변하지 아니 하니 까 이때  
부터 썸 그의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저녁 밥의 소화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까닭은 그는  
결코 음식물의 완전한 소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대개 웬만하면 그저 그대로 잊어버리고 내어버려  
두리라 하는 그의 음식물에 대한 관념이다.

백지와 색연필을 들고 덧문을 열고 문 하나를 여든 다음 또 문 하나를 여든 다음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인제는 어지간히 들어왔구나 생각키 때 썸 하여서 그는 백지 위에 다색 연필을 세워 놓고 무  
인지경에서 그만이다가 그만두는 아름다운 복잡한 기술을 시작하니 그에게는 가장 넓은 이벌판  
이 밝은 밤이어서 가장 좁고 갑갑한 것인 것 같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점점 늘어나니 그가 들어갔다 가는 언제 든지 처음 있던  
자리로도 나올 수는 염려 없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차츰 차츰 그렇지도 않은 것은 그가 알면서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이런 때에 여자가 와도 좋은 때는 그의 손에서 피곤한 연기가 무럭 무럭 기어 오르는 때이다 그 여자는  
그 고생이 자심 하여서 말랐다는 넓적한 손바닥으로 그를 두덕 두덕 두드려 주어서 잠자라고 하지만  
그는 여자는 가도 좋다고 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끔 정 말 좀 와 주었으면 생각  
도 한다 그가 만일 여자의 뒤로 가서 바지를 걸고 서면 그는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게 되어 버릴 만큼 화가 나  
서 말랐다는 여자는 넓적한 체격을 그는 여자 뿐 아니라 아무에게서도 싫어하는 것이다 넷—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거 추장 스러이 굴지 말고 산뜻이 넷만 족으면 여복 좋을 까 생각하여도 시계는 그러지  
않으니 아무리 하여도 하나 둘 셋은 내어 버릴 것이니까 인생도 이력 저력 하다가 그만 일 것인데 낮  
모를 여인에게 웃음까지 산저 고리의 지저분한 경력도 흐지부지 다 스러질 것을 이렇게 마음 조릴 것이  
아니라 암뿌으르에 봉투 씌우고 옷 벗고 몸 덩이는 침구에 떼 내어 맡기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어 편 할까 하고 그는 잔다.

1932, 2, 13 (一九三二, 二, 十三)